

독도의 진실-2

-조선의 울릉도 쇄환정책-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 편

1. 태종의 울릉도 쇄환정책

- 1392년 고려가 망해 이성계(그림)가 조선을 건국했다.



- 1404년 조선 제3대 왕 태종이 울릉도 거주민을 모두 육지로 데려오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한 원문은 다음과 같다.

강릉도(江陵道 : 강원도)의 무릉도(武陵島) 거민을 육지로 나오도록 명령했으

니, 이것은 감사의 말에 따른 것이었다.(命出江陵道武陵島居民于陸地 從監司之啓也)

『태종실록』권6, 태종 3년(1403년) 8월 조

- 이와 같이 태종의 명령이 내려져 울릉도 거주민들이 본토로 오게 되었다. 이렇게 울릉도 거주민들을 육지로 송환하는 정책을 **쇄환(刷還)정책**이라 했다. 쉽게 말하면 **울릉도 무인도정책**이고 일본에서는 이것을 **공도(空島)정책**이라 말한다. 쇄환정책이 실제로 실천에 옮겨진 것은 1416년이다.

2. 울릉도 거주를 요청한 대마도 사람들

- 그런데 1407년, 대마도 수호 **종정무(宗貞茂<소 사다시게>)**가 조선에 사절을 보내와 임금 태종에게 대마도 사람들과 함께 울릉도(무릉도)에서 살고 싶다고 요청했다. (주) 수호(守護): 일본의 사무라이 정권이 임명한 지방장
- 이에 태종은 일본 정권 쪽에서 비판할지 모르겠다고 하여 거절하기로 결정했다.
- 이런 조선 측 공식기록은 조선시대 초기에는 이미 대마도가 일본영토라는 사실이 확립되어 있었음과 대마도 사람들이 울릉도를 노리고 있었음을 확인해준다. 이에 대한 원문은 다음과 같다.

-
- 대마도 수호 종정무(宗貞茂)가 평도전(平道全)을 보내와 토산물을 바치고 잡혀갔던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정무(貞茂)가 무릉도(茂陵島)를 청하여 여러 부락을 거느리고 옮겨 살고자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이를 허락한다면 일본 국왕이 나에게 반인(叛人)을 불러들였다 하여 틈이 생기지 않을까?”하니, 남재가 답하기를, “왜인의 풍속은 반(叛)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따릅니다. 이것이 습관이고 상사(常事)이므로 이것을 금하지 못합니다. 누가 감히 그런 계책을 내겠습니까?”하였다.

- 임금이 말하기를, “그쪽 경내에서는 상사라고 하더라도 만일 월경해 오면 그쪽에서 반드시 어떤 말을 해 올 것이다.”

『태종실록』권13, 태종 7년(1407년) 3월조

- 이렇게 하여 대마도 측의 탄원은 실현되지 않았다.

3. 유산국도 거주민, 강원도에 도착하다

- 1412년 4월 유산국도(流山國島)에 거주한다고 하는 사람들 12명이 강원도 바닷가에 정박했다. 그들의 말이 기록되어 있으나 그때까지의 기록과 비교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다.
- 우선 그들은 무릉도에서 자랐고 무릉도에는 11호 약 60명이 살고 있는데 지금은 본도(本島)에 옮겨 살고 있다고 진술했다.
- 그런데 조선시대가 된 후에는 무릉도가 울릉도의 또 다른 명칭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현재 “옮겨 살고 있다”고 말하는 ‘본도’란 어떤 섬을 가리키는지 그리고 조선관리들이 아마도 ‘유산국’을 ‘유산국도’로 잘못 알아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못 알아들었는지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
- 의정부(議政府)에 명하여 유산국도(流山國島) 사람을 처치하는 방법을 의논하였다. 강원도 관찰사가 보고하였다. “유산국도(流山國島) 사람 백가물(百加勿) 등 12명이 고성(高城) 어라진(於羅津)에 와서 정박하여 말하기를, ‘우리들은 무릉도(武陵島)에서 생장하였는데, 그 섬 안의 인호(人戶)가 11호이고 남녀가 모두 60여 명인데, 지금은 본도(本島)로 옮겨 와 살고 있습니다. (중략) 이 사람들이 도망하여 갈까 염려하여 아직 통주(通州) · 고성(高城) · 간성

(杆城)에 나누어 두었습니다.”(命議政府議處流山國島人 江原道觀察使報云 流山國島人白加勿等十二名 求泊高城於羅津 言曰 予等生長武陵 其島內人戶十一 男女共六十餘 今移居本島<중략> 竊慮此人等逃還 姑分置于通州 高城 杆城)

『태종실록』권23, 태종12년(1412) 4월조

- 이와 같은 알기 어려운 문장을 푸는 열쇠는 **울릉도 토착민이 방언을 썼다**는 데 있다.
- 중국의 지리역사 책인 <삼국지(삼국의 역사)>에는 방언을 쓰는 울릉도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있다. 이 책 명칭은 <삼국지>이지만 항우나 유방이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지>가 아니다. 삼국의 전쟁과 전략전술 위주로 쓰인, 흔히 말하는 <삼국지>의 원래의 제목은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다. 울릉도민의 방언 이야기는 <삼국지연의>가 아니라 **역사지리 책인 <삼국지>**에 나온 것이다.
- 강원도 바닷가에 정착한 사람들은 무릉도(=울릉도)에서 생장했다고 말했으므로 울릉도 토착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 **그들이 울릉도 방언을 썼다고 판단된다.**
- 그 결과로 조선관리들이 ‘우산국’을 ‘유산국도’로 잘못 알아들었고 예를 들어 ‘본토로 옮겨 와 살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기록원들이 ‘본도(本島)로 옮겨 와 살고 있습니다’라는 말로 잘못 알아들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 **방언 때문에 우산국 사람들의 진술은 『태종실록』에 잘못 쓰였다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